

18세기 조선의 육·해방론 전개

백기인*

1. 머리말
2. 18세기 육·해방론의 형성 배경
3. 18세기 육·해방론의 전개
4. 맺음말

1. 머리말

양란 이후, 조선 사회에는 정치·경제적 변화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군제와 진법 등에 이르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중앙군을 비롯한 지방의 군사조직을 정비하고, 《기효신서》를 중심으로 진법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각종 무기제조나 병서편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훈련도감에 이어 어영청과 충용청·수어청이 차례로 설치되어 군영제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북한산성 축조 등을 비롯한 관방시설의 점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지의 방어책 외에도 수군의 진보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책임연구원

(鎭塞) 증강을 통하여 해방시설을 보강하고 삼도수군통어영을 두어 수도권 방어를 지원하는 해방체제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군사개편은 우선, 임진왜란 당시에 수용된 진법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 종래 대외방어의 '남방'과 대여진방어의 '북방'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난 청의 군사 통제와 간섭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다시 청이 머지않아 몰락하리라는 전망과 몽골의 부상, 그리고 조선 연안에서 피해를 주는 황당선의 출현과 그 폐해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엽 간 '도성수비체제'의 정비과정에서 다양한 국방논의가 전개되었는데, 당시 재조관료는 물론 향촌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양란의 반성과 교훈을 토대로 북방과 남방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방(南防)'과 '북방(北防)'의 제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는 18세기 전후로 조선의 국방체제가 수도방위 중심으로 재편강화되던 이른바 '도성수비체제 정비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국방논의를 육방(陸防)과 해방(海防)의 관점으로 검토해 본 글이다.¹⁾ 지금까지 이 시기의 국방문제가 주로 도성수비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군사제도적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²⁾ 본고에서는 이를 도성은 물론 변방 및 해상(안)방어 등을 포괄하는 국방 전 영역에 걸친 방어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성수비체제 확립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당시 육방과 해방을 동시에 중시하게 된 배

1) 본고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의 군제연구와 진법연구 등 다음의 선행 연구가 참고된다. : 申文燮, 『朝鮮後期軍制研究』, 단국대출판부, 1973 ; 同氏, 『朝鮮後期軍事關係研究』, 단국대출판부, 1996 ; 崔孝軾, 『朝鮮後期 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 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 研究』, 해안, 1999 ;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0 ; 盧永九, 『朝鮮後期の 戰術』, 그물, 2016.

2)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고가 있으나 대표적인 연구로는 李泰鎮,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연구』, 한국연구원, 1985 ; 이근호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등이 참고된다. 또한, 18세기 국방체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에는 『한국군사사』 7~8(육군본부, 2012)가 도움이 된다.

경은 무엇이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국방 논의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18세기 조선의 현실에서 제기된 전략적 인식의 양상을 군사사상적인 관점에서 ‘육방과 해방’이라는 구조를 속에서 관방, 도성방어와 진법, 해방과 수군개편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2. 18세기 육·해방론의 형성 배경

가. 척법 수용과 비판적 검토

18세기 조선의 국방문제 가운데 하나인 진법논의의 시발점은 임진왜란 도중에 도입된 진법문제로 소급된다. 조선 후기의 군대 편성이나 작전술의 변화가 바로 전쟁 중에 명군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척계광전법(戚繼光戰法, 약칭 戚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진 호란까지 전례없는 전란을 거치면서 조선이 군사적으로 겪은 가장 큰 변화는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도입이었고, 이를 수용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이 18세기 영·정조대까지도 계속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군은 조총과 새로운 전법을 구사하는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밀려 불과 개전 20일 만에 한양을 내주어야만 했다. 6월 중순경, 평양성마저 적 수중에 넘어가자 조선은 명에 구원병을 요청했고, 이에 부총병 조승훈(祖承訓)이 지휘하는 선봉부대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명군이 평양성에서 패하면서 명 지휘부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결국 ‘남방포수(南方砲手)가 아니면 제압할 수 없다’며 남병(南兵) 투입을 결정하였다.³⁾

남병 투입으로 전세가 반전되자 명군이 사용한 남병전술(南兵戰術)에

3) 『宣祖實錄』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기묘). “此賊非南方砲手不可制, 欲調砲手及各樣器械, 先至于此矣, 待南兵一時前進.”

관심이 쏠렸다. 명의 남병이 사용한 전술은 흔히 절강병법이라고도 부르는데,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보는 방파와 낭선, 장창과 당파 등을 사용하는 낭선부대와 방패부대를 사용하고 화포와 화전을 연속 발사하여 일본군을 제압하는 명의 남병전술을 ‘천하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⁴⁾

당시 국왕인 선조는 남병 전술서인 척계광이 지은 『기효신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구입하여 배우도록 권고하였다.⁵⁾ 평양성 전투 후, 선조는 도독 이여송을 만나 환담하는 자리에서 『기효신서』가 ‘왜적을 방어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비밀리에 역관으로 하여금 사오게 하여 유성룡에게 보이면서 이를 강해하도록 한 바 있다.⁶⁾ 조선인들의 눈에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의 승리는 낯설었지만 그들이 사용한 불랑기나 호준포, 단병기인 장창·낭선·당파 등의 무기는 더욱 생소한 것으로 조선 정부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였다.⁷⁾

그러나 『기효신서』는 보급과 동시에 병사들이 익히기 어려운 데다가 종래의 진법체계와도 달라 문제점이 제기되었다.⁸⁾ 본래 척계광 전법은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절강참장(浙江參將)으로 있을 당시 남방왜구(南方倭寇)의 방어를 목적으로 창안한 방왜전술(防倭戰術)인 만큼⁹⁾ 조선의 상황에 그대로 부합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화포와 창·당파를 사용하고, 낭선부대를 운용하는 새로운 제파식 전법은 종래 화포와 화살 및 기병에 의존하는 조선의 진법보다는 근접전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백병전으로 제압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4) 『兵學指南演義』序.

5) 『宣祖實錄』42권, 선조 26년 9월 25일(병자).

6) 『宣祖修正實錄』28권, 선조 27년 2월 1일(경술).

7) 『宣祖實錄』60권, 선조 28년 2월 13일(병진) ; 『宣祖實錄』67권, 선조 28년 9월 11일(경진) ; 『宣祖實錄』78권, 선조 29년 8월 21일(병진).

8) 노영구,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군사』 제34호, 1997, 125~154쪽.

9) 『紀效新書提要』 “是書乃其官浙江參將時, 前後分防寧波紹興台州金華嚴州諸處練兵備倭時所作.”

『기효신서』의 보급을 주도했던 병조판서 한효순(韓孝純)과 진법을 논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진법을 위주로 하되 중국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데 국왕 선조도 직접 동의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다.¹⁰⁾

선조대 제기된 『기효신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명·청 간에 세력각축이 고조되어 가던 광해군대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다. 임진왜란을 벗어나 이제 대륙상황이 조선을 위협하는 주요 정세로 인식되면서 후금의 기마병을 상대로 하는 진법에 대한 관심이 부상한 결과였다. 사실, 척계광 자신도 『기효신서』와 별도로 북방의 적정과 대립하는 상황을 근거로 『연병실기(練兵實記)』를 저술하여 절강병법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연병실기』는 『기효신서』와 달리 북방 기마부대를 대적하기 위해 보기병의 공조에 초점을 맞추어 전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부사용(副司勇) 한교(韓喬)는 서변(西邊)의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기효신서』의 포살법(砲殺法)과 『연병실기』의 거기보법(車騎步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서북의 달리면서 돌격하는 철기병(鐵騎兵)을 상대로 하려면 반드시 후자의 거기보법에 이용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¹¹⁾ 실제로 한교는 『연병실기』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병지남』을 저술하여 전차를 중심으로 기병과 보병을 하나로 묶는 진법을 검토하고, 이를 조선 상황에 알맞게 전통무기인 궁시(弓矢)를 소지한 보병운용법을 고안하여 조총의 보완무기로 활용하도록 했다.¹²⁾

이러한 진법상의 새로운 변화는 병자호란 이후에 더욱 뚜렷해지면서 전차 활용이 크게 강조되었다. 효종대 수석식 조총이 개발되고 숙종 후반기에 천보총과 홍이포 등의 출현으로 전쟁양상이 달라지자 그 영향이 진법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¹³⁾ 병자호란 당시 청기병에 의해서 조선군의 방어체계가 일거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청이 명을 붕괴시

10) 『宣祖實錄』 208권, 선조 40년 2월 13일(병오).

11) 『光海君日記』 39권, 광해 3년 3월 29일(기사).

12)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I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21~122쪽.

13) 노영구,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3, 2000, 64쪽.

킨 상황에서 대청방어(對淸防禦)를 위한 진법의 검토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는 척법을 보완할 조선적 진법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 청의 간섭과 대륙정세 변동

17세기 중엽, 명·청 교체기에 대륙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조선 정부는 외교적으로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을 통하여 조선과 청의 관계가 군신관계로 정리되면서 조선은 청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 하에 놓이게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정축화약(丁丑和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최우선으로 대명전(對明戰)에 조선군의 파병을 요구했고, 조선의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가해왔다.¹⁴⁾ 1639년 10월, 청은 정명계획(征明計劃)을 세우고 금주정벌을 위해 조선에 수군 파견과 군량을 요구하는 ‘조병(助兵)’을 제기하였다. 요구병력은 전선 120척에다 병력 6천명의 규모였고, 1641년 3월 출병 때는 포수 1000명에다 기병 500명을 포함하여 2천 명 가량이었다.¹⁵⁾ 청의 요청이 조선정부로서는 얼마나 힘겨운 요구였는지는, 1657년 당시 훈련도감의 군사를 1만 명, 어영군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한해가 겹쳐 전국에 기근이 발생하고 미가가 양등하여 실제 군액을 도감군 6350명에 머물 수밖에 없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¹⁶⁾

여기에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청의 통제와 간섭도 조선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개축한 산성을 허물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무기나 장비 등을 군사시설에 함부로 배치할 수도 없었다. 일례를 들면,

14) 『太宗文皇帝實錄』 卷之三十三 崇德二年 正月 二十八日 ; 『承政院日記』 3책,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 『仁祖實錄』 34권,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 『大東野乘』 권33, 『續雜錄』 4, 丁丑年 上.

15) 『仁祖實錄』 39권, 인조 17년 11월 25일(무인) ; 柳在城,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253~255쪽.

16) 『孝宗實錄』 18권, 효종 8년 1월 23일(병인).

1639년 12월 삼전도비가 건립된 그 이튿날부터 청사(淸使)는 조선의 군비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청 사신은 직접 삼전도비와 남한산성 성첩을 살펴본 뒤에 조선의 승지(承旨)와 중사(中使)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는데, 이는 조선의 군비에 청이 드러낸 간섭의 한 단면이었다. 청사는 도환인(逃還人)·채삼인(採蓼人)·향화인(向化人) 등에 관한 일을 제기하며 수없이 책망하고 고성을 지르며 남한산성과 강도 수축을 힐책하고, “해도를 수축한 곳과 남한산성을 우선 허물어 버린 다음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기 전까지 치보하라.”고 지시하였다.¹⁷⁾

이후로도 청사가 오면 남한산성은 언제나 순찰의 대상이 되었다. 청국은 군사시설 가운데 산성을 최우선적으로 감찰했으며, 의주의 성지나 부산 등지의 수축 등과 같은 변성(邊城)·부산 등은 허용했으나 내지(內地)에 수축은 엄단하였다.¹⁸⁾ 특히 평양성 수축은 청 정부가 조선이 청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한 대표적인 축성이었는데,¹⁹⁾ 이로 인해 조선 정부는 축성은 물론 군사장비의 배치, 군수물자의 수송을 비밀리에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예컨대, 1647년 11월 갑주 50부를 남한산성에, 20부를 강도에 수송하는데 청인(淸人)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보(朝報)에 내는 것을 단속하는 등 신경을 썼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²⁰⁾ 때로는 청은 조선이 왜를 핑계대며 군사를 늘린다고 칙서를 보내어 경고하기도 하였다.²¹⁾

또한 임진왜란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던 화약 제조와 무기개발에도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문등록(軍門謄錄)』에 의하면,

17) 『仁祖實錄』 39권, 인조 17년 12월 6일(무자).

18) 『仁祖實錄』 39권, 인조 17년 12월 9일(신묘) “義州城池, 系是邊城, 故不令毀撤. 俺等之所以禁斷者, 不在邊城, 而在於內地之修築. 故釜山等地, 已爲許築, 而今之南漢, 不可不毀也.”

19) 『仁祖實錄』 40권, 인조 18년 3월 25일(병오).

20) 『仁祖實錄』 48권, 인조 25년 11월 10일(병오).

21) 『孝宗實錄』 실록 5권, 효종 1년 8월 27일(무신) ; 『孝宗實錄』 5권, 효종 1년 9월 9일(경신).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화기(火器)가 매우 부족하여 각 포루에는 화약이나 대포의 비축량이 단 한 번의 전투조차 제대로 치르기 어려울 정도였다.²²⁾ 그러나 선조연간에 생포한 왜병들의 정보를 참작하여 조총을 자체 제작하여 1593년 12월 과거에서 시취(試取)한 바 있었고,²³⁾ 조작이 간편한 일본의 철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종래의 방전총통(放箭銃筒)보다 위력이 뛰어난 철환총통(鐵丸銃筒)의 제조에도 성공하였다.²⁴⁾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염초를 바닷물로 제조하여 대체하고자 했는데,²⁵⁾ 정두원(鄭斗源)이 북경 사행시 직접 염초굽는 법을 배워와 1633년 10월경에는 경상도 6고을에서 생산하는 염초량을 3개월간 무려 1천여근 정도로 향상시켰다.²⁶⁾ 그리고 1614년 조총청이 훈련도감으로 승격된 후에는 조총을 비롯한 불랑기·백자통·삼안총 등을 제작했는데, 1627년 양서(兩西)를 제외한 6도의 통계를 보면 조총수가 1만 7180자루에 육박했다.²⁷⁾ 조선의 조총은 청에서도 그 견본을 요청할 정도로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포수의 실력도 상당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염초 등 화약의 원료가 부족한데다가 병자호란 이후에 이른바 ‘범월(犯越)사건’이 일어나 조선과 청국 간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조선의 총포개발에 큰 악재가 되었다. 1642년 9월, 월경하여 삼을 캐던 강제인들이 청인(淸人)에게 대포와 활을 맞고 2명이 살상당하

22) 『軍門謄錄』, 병신 2월 11일 ; 『軍門謄錄』, 을미 10월 19일 ; 『軍門謄錄』, 병신 4월 7일. “火藥大砲, 多多益善. 江邊所儲, 不足以支一戰之用, 猝然遇賊, 則將以何物制之也, 極爲寒心.”

23) 『宣祖實錄』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신사) ; 『宣祖實錄』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기해). 임진왜란 중, 조선에서 제조한 조총이 등장하는 것은 기록상 1593년 9월 14일인데, 이때 이순신은 일본 조총을 모방하여 우수한 성능의 조총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박재광, 『한국군사사』 13(군사통신·무기), 육군군사연구소, 2012, 428쪽).

24) 宇田川武久, 『東アツア兵器交流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3, 2~7쪽.

25) 『宣祖實錄』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병자).

26) 『仁祖實錄』 25권, 인조 9년 7월 12일(갑신).

27) 『仁祖實錄』 16권, 인조 5년 5월 1일(병인).

고 36명이 사로잡힌 적이 있었는데, 숙종(肅宗) 연간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²⁸⁾ 급기야 청의 관리가 백두산 지도를 그리기 위해 왔다가 압록강 인근에서 삼을 캐던 조선인의 총포에 피격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외교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²⁹⁾ 결국 후주진을 혁파하고, 조총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조선의 무기체계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말았다.³⁰⁾ 조선의 조총 제작술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는 점은 청국이 조선에 조총수 지원을 요청한 이른바 ‘나선정벌(羅禪征伐, 1654, 1658)’의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군은 사격술만큼은 우수했으나 정비가 부실했고, 현지에서 입수한 러시아군의 조총은 이미 수석식(燧石式)이었으나 조선군이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화승총이었다.

그러던 중 청국은 대륙점령을 완료하고 대조선강경책(對朝鮮強硬策)을 구사하던 섭정 도르곤(多爾袞, 1612~1650)이 사망하자 조선에 대한 감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다.³¹⁾ 조선 정부는 1656년에 표류인들의

28) 『仁祖實錄』 44권, 인조 21년 9월 21일(임자) ; 『同文彙考』 卷之五十, 「犯越 二我國人犯人監候處斷各官擬罪咨」

29) 『藥泉集』, 「藥泉年譜」 권4 ; 『肅宗實錄』 16권, 숙종 11년 12월 1일(정해).

30) 『肅宗實錄』 보결정오 17권, 숙종 12년 윤4월 13일(병인) ; 『臚錄類聚』 권10, 交隣 3, 숙종 11년 10월 15일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발전과 북방영토의식』,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6, 56쪽.

31) 청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간섭통제의 근거는 정축화약인데, 이로 인해 1704년(숙종 30) 전후로 도성 및 북한산성 축조 논의과정에서도 청에 자문을 구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肅宗實錄』 41권, 숙종 31년 1월 15일(경술), 2월 6일(경인) ; 『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10월 21일(임오), 28일(기축). 그러나 이때까지는 축성 사실을 자문에 넣지 말자거나 성지 순심(城池巡審) 정도로 표현하여 자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북한산성 축조문제가 재문될 무렵인 1710년 9월 28일 청에서 보내온 자문에서 청의 해적 소탕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 연해의 해적 방수에 힘쓰라.’는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는 이를 빙자(憑藉)하여 성지수축 문제를 황당선이 자주 나타난다는 말을 침입하여 청국에 통고하였다(『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9월 28일(기미) “皆沿海城池, 有所拘礙, 每不能修築. 今因此機, 憑藉陳請爲宜. 兵曹判書閔鎮厚仍請添入荒唐船數現之事, 俾爲申飭, 上可之” ; 『備邊司臚錄』 60책, 숙종 36년 9월 30일 “上曰, 彼於咨文, 欲使我防守, 則因此機會, 修治城池事, 指辭移咨好矣.”)

조총을 모방하여 훈련도감에서 새로운 체제의 조총을 만들었고,³²⁾ 얼마 후에는 청으로부터 새로운 화기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조총의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우천에서도 사격이 용이해지는 등 그 신뢰성이 높아져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러시아 정벌을 위해서 청국이 두번씩이나 조선의 조총수 파병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의 공공연한 군사 훈련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총이 급속히 보급되어 전체 무기체계에서 조총이 궁시를 대신하면서 보병에서 조총을 장비한 포수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는데,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을 비롯한 청과 일본의 보병들은 상당수가 조총으로 무장하여 밀집진형(密集陣形)을 구사하며 사격을 기할 수 있었다.³³⁾ 『만기요람』의 군기 명세표에서 보여주듯이,³⁴⁾ 19세기 초 각 군영의 군기수량은 조총이 42,154자루나 되었고 그것도 자체 생산한 것이어서 점차 재래식 화기의 운용능력이 향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내부 사정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였다. 청이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이후에도 명의 잔존세력 등의 반란이나 내부 정세의 혼란이 계속되어 청 정부를 위협했던 상황은 조선인들 사이에 청의 몰락에 관한 소문의 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국의 사정을 보면, 1644년 9월 청군이 북경을 함락한 상황에서도 명의 이자성(李自成)이나 장헌충(張獻忠) 세력 등의 발호나, 복왕(福王) 중심으로 명 황족과 관료 출신들이 남경(南京)을 무대로 남명(南明) 정권을 세우고 저항을 계속하였다. 1661년, 청에 투항한 오삼계(吳三桂)가 미얀마에서 영력제(永曆帝) 영명왕(永明王, 1649~1662)이 사로잡혀 멸망한 후에도 저항과 반란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오삼계(吳

32) 『孝宗實錄』 17권, 효종 7년 7월 18일(갑자). “蠻人之漂到也, 得其鳥銃, 其制甚巧, 命訓局倣而造之.”

33) 노영구, 「18세기 기병 강화와 지방 무사층의 동향」, 『한국사학보』 제13집, 2002, 365, 368쪽.

34) 『萬機要覽』 軍政編 .

35) 박재광, 『한국군사사』 13(군사통신·무기), 육군본부, 2014, 439쪽.

三桂)가 주동한 난은 이른바 삼변의 난(1673~1681)으로 확대되었고 정성공(鄭成功)의 반란(1661~1683) 등으로 이어졌다. 성조(聖祖) 강희제(康熙帝) 재위기(1662~1722)에 이르러 이를 평정하고 청조의 극성기를 이루었지만 고종(高宗) 건륭제(乾隆帝)의 집권기(1736~1795)에도 서장족의 반란(1771), 서몽골 준갈이부의 저항(1771), 대만의 임협문(林夾文)의 난(1786) 및 안남(安南)·면전(緬甸) 지역의 저항(1788), 운남(雲南)의 묘족난(1797) 등이 계속되었고, 특히 서몽골 오이라트 4부 중 하나인 준갈이부와는 사활을 건 전쟁을 70년간이나 치러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청국 사정으로 인해 조선인들 사이에는 미구에 청이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청이 몰락하여 그 발상지인 영고탑(寧古塔)으로 회귀하리라는 이른바 영고탑회귀설(寧古塔回歸說)이 그것이다.³⁶⁾ 이러한 소문은 이미 현종대부터 조선사회에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북경을 다녀온 동지정사 이경억(李慶億) 등은 오히려 청이 결코 망할 조짐이 아니라며 조선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면 장차 ‘흙덩이가 무너지는 듯 기와가 깨지듯 하는 형세가 있을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³⁷⁾ 그럼에도 청의 몰락에 관한 소문은 몽골의 발흥에 관한 소식과 함께 조선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는데, 청이 오삼계 세력 등으로 인해 혼란 속에 있는 동안에 몽골의 발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⁸⁾

실제로 숙종 연간에 청나라는 몽골의 발흥과 러시아와의 흑룡강 사태가 일어나자 조선에 조총 3천 자루를 요구해왔다.³⁹⁾ 조선 조정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수축을 결정하고, 백두산(白頭山)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던 것도 오삼계(吳三桂) 반란을 보면서 청 몰락과 함께

36) 영고탑회귀설에 대해서는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을 참조.

37) 『顯宗實錄』 16권, 현종 10년 3월 4일(정유).

38) 『顯宗實錄』 17권, 현종 10년 9월 30일(경신) : 『肅宗實錄』 1권, 숙종 즉위년 11월 7일(병인) ; 『承政院日記』 14책, 숙종 6년 3월 10일(기해).

39) 『肅宗實錄』 23권, 숙종 17년 4월 12일(정묘) ; 『備邊司謄錄』 45책, 숙종 17년 4월 13일.

몽골 부상으로 인한 위기감에 따른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⁴⁰⁾ 영조대에 들어와서도 ‘오랑캐의 운세가 백년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은 계속되었고, 북경의 재변에 따른 북방 정세의 변화, 곧 청이 영고탑으로 가기 위해 조선의 육진(六鎭) 지역을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돌고 있었다.⁴¹⁾

이밖에도 조선해안에 황당선이나 표류선의 표착이 점차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숙종 이후 서해지역에 출현한 황당선은 연해지방의 민가를 약탈하거나 연변군사들과의 충돌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 정부로 하여금 해방대책에 관심을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⁴²⁾ 단적인 예로 1738년 7월 10일 해서에 나타난 황당선을 보면, 규모만도 400명에 이르렀고 해당 지역의 진민(鎭民)과 접전하여 2명의 주민이 사망하기까지 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어채(魚採)’가 아닌 ‘침략(侵掠)’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⁴³⁾

3. 18세기 육·해방론의 전개

가. 관방문제에 관한 논의

18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왜란과 호란에 대한 반성, 대륙정세의 변화, 인근 연해에 등장하는 황당선 출현 등으로 새로운 방어전략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새로운 방어전략 가운데 육방문제는 북방(北防)인 관방

40) 『肅宗實錄』 1권, 숙종 즉위년 11월 13일(임신) ; 『肅宗實錄』 9권, 숙종 6년 3월 5일(갑오).

41) 『英祖實錄』 28권, 영조 6년 12월 17일(신해).

42) 『備邊司謄錄』 53책, 숙종 29년 6월 29일 ; 『承政院日記』 28책, 경종 1년 윤 6월 12일(신미) ; 『備邊司謄錄』 90책, 영조 7년 7월 12일

43) 『備邊司謄錄』 104책, 영조 14년 7월 10일.

(關防)과 수도의 방어체계인 도성방어(都城防禦)가 핵심을 이루었다.

관방이란 적의 침입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어시설물 일체를 말하는데,⁴⁴⁾ 주로 산성·도성·읍성·진보 등의 성곽류와 각종 목성이거나 도로·방탄(防灘) 등 천연·인공 장애물을 가리킨다.⁴⁵⁾ 당시 압록강 연안 8백리에 7개 읍과 36개 진보(鎭堡)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긴 요성을 고려하지 않아 효용성에 의심이 제기되었다. 1729년(영조 5)에 평안감사 송인명(宋寅明)도 병자호란 당시 관방과 군읍의 배치관계에 주목하며 관방의 지리적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⁴⁶⁾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서는 당시 폐지된 진보가 전국에 무려 370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핵심 관방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 등 관북(關北)과 관서(關西) 두 지역이 각각 111곳과 104곳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⁷⁾ 산성 또한 전국에서 폐지된 것이 346개였는데, 남아 있는 것은 45개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거의 폐지된 데다 축성법도 산세(山勢)에만 의존하여 산성의 효과도 군사적으로 매우 불비한 상황이었다.⁴⁸⁾

〈표〉 『연려실기술』에서 제시한 산성 및 진보의 현황

구 분	지 역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평안	계	
산성수	폐지된 산성	30	66	67	29	18	44	35	57	346
	잔존 산성	6	2	12	8	6	-	-	11	45
폐지된 진보수		16	11	48	38	30	12	111	104	370

44) 『萬機要覽』, 「軍政·關防」 “設險固圉, 是謂關防. 凡道路控會, 嶺隘緊要, 築城置兵, 以備外侮, 皆是物也.”

45) 『增補文獻備考』 권25-30, 「輿地考關防」

46) 『英祖實錄』 23권, 英祖 5년 8월 27일(기사) “我國則深置關防, 露置郡邑. 如義州城, 亦迫在鴨江之岸, 丙子之亂, 林慶業守義州, 而未及措一策. 議者或言 ‘義州府尹, 春夏處於城中, 秋冬則宜入處於稍內之地, 昌城等邑, 亦當入置深處.’”

47)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邊圉典故(鎭堡)」

48) 『肅宗實錄』 19권, 숙종 14년 6월 14일(을묘) “修山城又有小目, 擲險清野.” ;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山城」



『관서총도(關西摠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이러한 상황에서 숙종~영조 연간에 관방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정묘·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침입로인 압록강 지역의 서북과 북변의 ‘요해처(要害處)’가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략적 요해처로는 강계(江界), 창성(昌城), 당아산성(當峨山城), 아이진(阿耳鎭), 의주(義州), 구성(龜城), 선천(宣川), 동선령(洞仙嶺), 효성령(曉星嶺) 등을 서로(西路)의 최고 요충 관방(關防)으로 꼽혔다.⁴⁹⁾ 이는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이 제시한 관서(關西)의 요로인 박천(博川)–태천(泰川)–평양(平壤) 축선과⁵⁰⁾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숙종대 영의정 허적을 비롯한 조정 신료 간에 논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이었다.⁵¹⁾ 이때 조정에서는 완향령 남쪽과 차령, 우현 북쪽에 진을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고, 1680년(숙종 6)까지 압록강변에서 적유령 산맥 일대에 이르는 영애방어선을

49) 『備邊司謄錄』 112책, 영조 19년 4월 21일. “卽西路關防之最要緊處也.”

50)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關防」 “關西三路, 惟博川泰川一路, 最爲關重. … 定州路次之.”

51) 『備邊司謄錄』 31책, 숙종 1년 5월 27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⁵²⁾ 평안도의 병력수를 1746년(영조 22)까지 평양 1만 명, 안주 5천 명, 영변 5천 명 등 2만 명 수준을 확보하는 조치까지 단행하였다.⁵³⁾

그런데 우통례(右通禮) 우정규는 관방문제에서 서북 변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를 해서(海西)와 경기(京畿) 지역까지 연결하는 한편, 폐사군을 중시하였다. 해서지역의 청석곡(靑石谷), 해서와 관서의 경계에서 동선령(洞仙嶺)을 중심지로 보고, 함종과 정주 2곳이 삼수갑산과 통하고 다시 폐사군(廢四郡)과 연결되는 요충지라고 본 것이다.⁵⁴⁾ 육진(六鎭)이 전초기지로서 명·청 교체 이후 방어관심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위협은 호란이나 여말 흥건적의 난에서와 같이 압록강 하류인 의주-선천-정주-함종 방면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6진(鎭)보다 함관(咸關)과 철령(鐵嶺)을 우선적으로 진수하되, 4군(郡)을 활용하여 압록강에서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지경과 경계를 개척하여 변방을 보장하는 방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⁵⁾ 특히 관서지역에서 희천(熙川)의 적유령(狄踰嶺), 가산(嘉山)의 효성령(曉星嶺)과 선천(宣川)의 검암성(劍岩城), 철산(鐵山)의 운암성(雲暗城)을 요해처로 제시하면서 압록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중심 루트에 나무를 키워 천연적인 험지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강조하였다.⁵⁶⁾ 1704년 3월, 함경도 지역의 함흥, 마천령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성곽 수축과 군

52) 盧永九, 「5군영제의 확립과 군영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7(조선후기I), 육군본부, 2012, 423쪽; 고승희,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도로방어체계의 정비」, 『한국문화』 34, 2004, 207~212쪽.

53) 『備邊司謄錄』 115책, 영조 22년 7월 2일. “兵營手下軍兵, 只是四部兵近五千人而已, 兵使爲一路大將, 且在賊路要衝, 而軍卒之單弱如此, 誠極寒心, 安州諸般名色, 合爲四部, 今不可更爲添軍, 寧邊, 地廣人眾, 距兵營六十里, 可以朝令而夕發, 今若於寧邊, 一依安州例, 設置四部之制, 則合可爲萬兵, 與監營壯十部之數, 相同矣, 監·兵營, 置二萬兵操練.”

54) 『經濟野言』, 「備邊固圍之策」. “惟以六鎭爲要然, 此特邊境之憂, 不若咸定諸郡之爲急, 蓋咸定諸郡與三甲相通, 而三甲水皆北流, 又與廢四郡接近.”

55) 『經濟野言』, 「備邊固圍之策」

56) 『經濟野言』, 「關防設置之策」

사력 확충하고, 함흥을 독진(獨鎭)으로 편성한 것, 나아가 마천령 방어를 위해 1714년(숙종 40) 길주에 방어사 설치나 1720년(숙종 46) 단천에 독진 설치와 같은 군사적 조치는 모두 관서와 관북을 연결하는 북방 강화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⁵⁷⁾

한편 지리학자 정상기는 서로(西路)와 북로(北路)의 관방과 요충지를 관애(關隘) 중심으로 검토하고 축성 및 해자 설치 등을 활용한 적극적 방수를 강조했는데,⁵⁸⁾ 그는 요해처 중심으로 축성하고 해자를 운영한다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처럼 열흘 안에 서울이 무너지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상기가 제시한 관방대책의 특징은 병차(兵車) 사용을 제안한 것인데, 청 기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차병(車兵)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되 전국에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북도의 육진과 함흥, 서로의 의주와 안주평양, 기타 번진(蕃鎭)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관방 검토과정에서는 북별론적 입장을 제시한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숙종대 윤희의 북별론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군사실학자 송규빈은 압록강 너머의 봉황성(鳳凰城)·안시성(安市城) 등 북쪽 청군의 군사적 요충지역에 대한 점령을 거론하며 ‘북별적 관점’에서 관방문제를 검토하였다. 그의 관방대책은 성방어(城防禦), 적대(敵臺)와 기성보(騎城舖)의 방어시설, 철폭(鐵炮)와 화기(火器), 검차(劍車) 등을 활용한 전술적 통합론으로 요약된다.⁵⁹⁾ 그가 제시한 견해는 4군(郡) 지역을 적극적인 변방전략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점에서는 우정규와 일치하며, 적 기병의 거병(車兵)으로 대적하는 전술적 제안이나 축성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성곽방어에서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 활용 등은 정상기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57) 노영구, 「중양 군영과 지방군을 통해 본 조선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 『장서각』 33, 2015, 77~78쪽.

58) 『農圃問答』, 「設關隘」

59) 『風泉遺響』, 「西塞籌略」

그런데 이 시기에 관방 가운데 중요한 시설로서 산성 운용은 종래의 산성 방식을 대치하는 자연성·토성·목성·목책 등의 축조 및 운용법이 제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역사실학자 안정복의 경우, 북방의 강화를 위해 의주에서 경원에 이르는 1천여 리에 요새지마다 상실(橡實)을 심어 자연성(自然城)을 만들고 그 안에 토성을 쌓아 이중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⁶⁰⁾ 산성이 수적으로 즐고 축성이나 관리상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여 산성의 가치가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대치하거나 보완하는 목성·목책 등으로 대치하는 방안의 제시나 읍성(邑城)의 가치가 제고된 것이다.⁶¹⁾ 1742년에 벽돌을 사용한 축성이 강화 외성 축조에 적용되었고,⁶²⁾ 1743년에 서로(西路) 지역에서 관방시설이 화전 폐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선천의 좌현, 동선령의 전답을 원전(原田)과 속전(續田)으로 구분하고, 속전에 나무를 심어서 관방을 굳게 하는 방식을 채용한 예는 그러한 방안이 실제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⁶³⁾ 또한 1747년에 평안병사 이일제(李日躋) 주관 아래 구성(龜城)의 새장(塞牆)과 선천(宣川)의 좌현(左峴), 서림(西林), 효성(曉星) 등에서 관방보수를 실시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⁶⁴⁾

60) 『順菴叢書』上 卷九, 「問海浪島」

61) 읍성은 조선초 왜구 침공에 대비하여 본격적으로 축조되었다. 중종대에 160개 정도를 유지하였고, 영조대 100여 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은 다시 강조되었다.

구분	행정구역수	읍성수	증감
세종실록지리지	335	96	
신증동국여지승람	330	160	△
여지도서	334	107	▽

62) 『英祖實錄』 55권, 영조 18년 6월 19일(병오).

63) 『英祖實錄』 57권, 영조 19년 4월 20일(계묘). “仙, 曉星二嶺, 卽西路關防最要處也。曾前樹木茂密, 而近漸童濯, 兩道兵使竝重推, 另爲禁養之意, 嚴飭爲宜.”; 『英祖實錄』 58권, 영조 19년 4월 20일(계묘) “續田則請盡令陳廢, 禁養栽植, 以重關隘, 罷都城增築之議, 令各軍門, 分掌四面, 隨毀修築.”

64) 『英祖實錄』 65권, 영조 23년 1월 15일(을사)

이렇듯 18세기 중엽에는 종래의 ‘산성유익론’에 따라⁶⁵⁾ 낙동강 일대 산성 수축 등 전국에 산성 수축이 재검토되던 상황과는 달리,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장처로서 남한산성 등 수도권 중심의 주요 산성을 제외하면 산성의 효용성이나 석축 등에 의한 산성운영은 거의 회의적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산성을 우회하거나 기병전술로 산성방어 체제가 기병에 대응책으로서 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돌로 쌓는 축성 대신에 띠풀과 진흙을 석회와 함께 이겨서 벽돌을 찍어서 축성하거나 목책·목성과 같은 보조수단의 활용이 제시되었다.⁶⁶⁾ 특히 수목을 활용한 목성의 운용이 자연장애물로서 서북지역의 방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인력과 비용절감, 설비의 편리한 점 등으로 인해 산성을 대체할 만한 방어책으로 제기되었다. 목성 축성은 이미 광해군대 명·청 세력이 각축하던 불안정한 대륙정세 하에서 비변사에서 강화방어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⁶⁷⁾ 영조대에 들어와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결국, 이러한 산성을 목책·목성 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제도상으로 관서(關西)·관북(關北)을 연결하는 관방전략으로서 숙종대 함경도에 기병부대인 친기위(親騎衛)와 평안도에 별무사(別武士) 등 지방 기병부대의 설치 운용,⁶⁸⁾ 북방의 기병부대에 대항하는 기마전술에 대

65) 『西厓集』 書狀, 天兵退駐平壤後條列軍中事宣狀 ; 유재춘, 「조선헌기 경상도의 지역거점 산성연구」,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10, 112쪽.

66) 『風泉遺響』, 『西塞籌略』 “今有一法, 以茅泥和石灰, 作一大白磚, 環築如制之城, 其高其廣, 自可如意.”; 『木城』 “今以天作之巨嶺, 養其自生之樹林, 密密重重, 遮蔽於層崖絕磴之上, 望之若干雲而凌霄.”

67) 『光海君日記』 권80, 광해군 7월 11일(신유).

68) 姜錫和, 「조선헌기 함경도의 친기위」, 『한국학보』 제89호, 1997 ; 동씨, 「조선헌기 평안도의 별무사」, 『한국사론』 제41호, 1999. 강석화에 의하면, 평안도의 별무사는 1712년(숙종 38) 창설 당시 300명이었고, 이후 1718~1719년(숙종 44~45)에 의주, 강계, 창성, 선천, 삼화에 별무사가 창설되어 그 규모가 1719년 1,900명, 1727(영조3) 2,50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함경도의 친기위 역시 1713년(숙종 39) 1,200명으로 2배 증가되었고 이후 1750년(영조 26)에는 3,000명이 되었다.

한 재인식과 함께⁶⁹⁾ 청 주력군인 기병을 상대로 하는 기창교전(騎槍交戰)의 재정립, 나아가 수원지역의 기병부대인 별효위(別驍衛) 창설 등으로 이어지는 군사방어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⁷⁰⁾

나. 도성방어와 진법 논의

관방에 의한 관북·관서지역 등 북방과 함께 육방의 또 한 축은 도성방어다. 17세기 이후, 도성방어의 대전환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종래의 수도 외곽지역의 보장처 중심에서 수도권 중심방위체제로 개편된 데 따른 변화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체로 인구의 증가, 서울의 동시공간 확대 및 촌락의 증가, 그리고 자연재해와 부세 부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유민의 발생 등이 지적되어 왔다.⁷¹⁾ 이에 덧붙여 필자는 이 시기에 수도방어에 관한 문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고려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수도 서울은 1592년 4월 개전 20여 일도 채 안 된 1592년 5월 2일 함락되었고, 병자호란 때에도 청군 선봉대가 1636년 12월 8일 압록강을 도하한 후 6일 만인 12월 14일 서울 근교에 도착함으로써 수도방위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인조대 영장제를 설치하고 속오군을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군을 정비하는 한편, 어영청 설치로부터 금위영 창설로 이어지는 5군영제를 갖추어 중앙군을 재편하였다. 그리고 숙종 후반기부터 삼군문도성수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군영제의 정비를 통한 도성방위체제의 기틀 위에서 18세기 초 훈련도감군 5천 명, 훈련별대와 정초군으로 창설한 금위영 1만 4천 명 등이 주축을 이루는 중앙군의 재편

69) 李弘斗,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군사사연구총서』 제2집, 2002.

70) 崔炯國,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혜안, 2013, 155쪽.

71)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5~26쪽.

을 완료하였다.⁷²⁾

양란을 계기로 이루어진 군제 개편은 도성방어체계의 기본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영조 초 일어난 패서사건이나 신임사화(辛壬士禍) 등의 정변·민란은 도성수비를 더욱 강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1728년 무신란(戊申亂, 이인좌의 난)은 반란군의 수괴인 이인좌가 비록 청주성을 함락한 후 도성을 향해 진격하다가 안성에서 패하고 죽산에서 오명항(吳命恒)에게 체포되면서 수습되었지만 충격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었다.⁷³⁾ 반군 지도부가 경기·영호남 인사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안감사와 충융청군의 최고지휘관 및 일부 금군이 가담했고, 토벌군은 진압과정에서 지휘통솔상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여 도성방위가 크게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⁷⁴⁾ 이외에도 영조 원년인 1725년부터 빈번하게 계속되는 패서사건이나 이지서변란(李之曙變亂, 1748)과 같은 정변 등이 왕권과 치안을 크게 위협하였다.⁷⁵⁾

영조대 도성수비에 관한 방어 개념은 종래의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이는 ‘도성사수론’의 성격을 띠었다. 양란의 교훈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지만, 변란이 발생하면 원거리인 강화성이나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을 사수하되 지근거리에 있는 북한산성을 전술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

72) 노영구, 「5군영제의 확립과 군영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7, 육군본부, 2012, 435~436쪽.

73) 『英祖實錄』 16권, 영조 4년 3월 15일(을축) ; 『英祖實錄』 16권, 영조 4년 3월 24일(갑술).

74) 朴光用, 「탕평책 실시의 배경」,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71쪽. 이인좌의 반군 진압에 동원된 중앙군은 1차 출정 때 마병 중심 357명을 주력으로 하는 훈련도감 386명, 금위영 1,065명, 2차 출정군은 어영청 572명, 개성군 마병 별기위 200명, 이외에 한성수비 강화를 위한 개성의 별기위 300명과 장단방어영 군병 2,000명이었다(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09쪽).

75) 『英祖實錄』 24권, 영조 5년 12월 7일(정미) ; 『英祖實錄』 67권, 영조 24년 5월 21일(갑진).

다.⁷⁶⁾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숙종대 이미 수도방위 차원에서 문수산성의 축성이 완료되었고,⁷⁷⁾ 1711년 4월 축조를 시작으로 이해 10월에는 북한산성의 체성(體城)과 여장(女牆)이 완공되었다.⁷⁸⁾ 그리고 1712년 5월 부터는 북한산성에 중성(重城)을 쌓기 시작하여 이해 10월 어영청(御營廳)과 금위영(禁衛營)이 주관하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성랑(城廊)·창고·문루(門樓)와 못을 파고 우물을 만드는 역사가 완료되어 도성방어의 기본 시설이 갖추어졌다.⁷⁹⁾

도성사수론자인 우정규는 고구려인들의 안시성전(安市城戰) 사수를 언급하면서 ‘중국인들이 동국 사람은 성을 잘 지킨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도성방어를 강조했고,⁸⁰⁾ 송규빈 또한 도성의 가치를 ‘종사(宗社)와 신인(神人)’의 처소라고 규정하면서 왕조의 정신적 실체로 간



<도성삼군문분계지도>

76) 姜性文, 「수도 서울방위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45집, 1993, 163쪽.

77) 『肅宗實錄』 27권, 숙종 20년 9월 13일(무인)

78)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0월 18일 ; 聖能, 『北漢誌』, 「事實」

79)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5월 25일(정미) ; 『肅宗實錄』 52권, 숙종 38년 10월 8일(무오).

80) 『經濟野言』, 「都城守禦之策」

주하며 도성사수론을 주장하였다.⁸¹⁾ 노론의 이념적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역시 임진·병자란에 대한 반성적 관점에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검토하고, 당시 동인의 정책을 ‘대계지실(大計之失)’이라면서 ‘대가도요(大駕渡遼)’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는데,⁸²⁾ 그 역시 도성사수를 지지하였다. 영조대 도성방어와 관련하여 ‘도성사수(都城死守)’는 대세이자 중론이었다.⁸³⁾

도성사수론자인 동지(同知) 이천구(李天球)는 영조에게 한양 도성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돈의문(敦義門)에서 북쪽으로 동소문(東小門)까지는 천험(天險)의 지역, 동소문에서 남쪽으로 동대문까지 험조한 지역, 동대문에서 수구문(水口門)은 평탄하나 성첩이 두텁고 완벽한 지역, 그리고 수구문에서 남대문까지는 절험 지역, 다시 남대문에서 돈의문까지는 평이하나 성의 기지가 단단하고 높이 쳐다보는 지역이라고 한성의 지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는데,⁸⁴⁾ 도성의 지형조건이 수성에 유리하고, 인구·물산이 풍부하여 종사·인민·식량·재력을 구비함으로써 ‘도성사수’의 요건을 잘 갖추었다고 보았던 것이다.⁸⁵⁾

1571년(영조 27) 도성수비에 관한 편제가 「수성절목(守城節目)」으로 반포되었는데, 이는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論音)」·「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과 함께 『수성책자(守城冊子)』로 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삼군문의 담당구역을 구획하고 5부의 방민(坊民)을 편성하고 있다. 삼군문의 수비

81) 『風泉遺響』, 「守都城」 “都城者, 宗社之所安而神人之所托也.”

82) 『南塘集』 권31, 「書西厓柳相懲毖錄後」

83) 임진왜란 당시 ‘도성사수’와 18세기 ‘도성사수’가 강조된 배경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양자가 본질적으로 그 지향과 목적에서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 전략적 귀결점도 일치하며, 18세기에 들어와서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결합하여 이른바 ‘18세기 도성수비체제’를 형성시켰던 것이라고 본다.

84) 『英祖實錄』 95권, 영조 36년 1월 22일(무진) ; 『承政院日記』 65책, 영조 36년 1월 22일(무진)

85) 『風泉遺響』, 「都城」 “以余度之, 非都城, 則大敵不可禦, 宗社不可安, 人民不可保, 糧餉不可繼, 財力不可得.”

구역은 숙정문 동변에서 돈의문 북변까지 4,850보를 훈련도감에서, 돈의문에서 광희문 남촌가(南村家)까지 5,042보반(步半)을 금위영(禁衛營)에서,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보반(步半)까지를 어영청(御營廳)에서 각각 나누어 담당하도록 정하였다.⁸⁶⁾ 각 군문은 구역 내를 전좌·중·우·후의 5영(營)으로 나누고, 각 영은 다시 5부(部)로, 부는 다시 5사(司)로 나누었으며, 도성내 5부 방민을 모두 계(契)로 묶어 각 군문의 5영에 분속시켰다.⁸⁷⁾

그런데 군사전문가 송규빈이 이러한 도성방어의 오부방민 편성을 5위진법에 결합시켜 군사적 기능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군사제도상으로 오위제를 복구하면서 중앙군의 수비체제로 굳혀져간 삼군문체제의 운용을 조정한 것으로 『수성윤음』과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에 기초한 방어전법을 적용한 구상이었다. 『풍천유향(風泉遺響)』에 의하면, 삼군문의 병력을 오위진법에 따라 5부 4통제로 재배치하는 도성병력배치안이 제시되고 있다.⁸⁸⁾ 5위의 정군은 총 62,500명이고, 제대의 편제는 1위(衛: 12,500명)–5부(部), 1부(2,500명)–4통(統), 1통(625명)–5려(旅), 1려(125명)–5대(隊), 1대(25명)–5오(伍)로 구성한다. 이외에 담당구역 및 병력배치의 논의, 민호의 분속, 삼군문에 분속된 성타법(城操法)의 분수(分授) 등은 모두 『수성윤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성윤음』에 빠져있는 전투수칙이나 작전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송규빈의 도성방어책은 군사작전 측면에서 연용대를 포함한 도성자체방어, 남한산성·송도·강도 등의 도성외곽지역방어라는 이중방어체계의 구현이었다. 도성사수를 위한 도성자체방어는 3선방어개념을 적

86) 『英祖實錄』 62권, 영조 21년 7월 6일(병자) “三軍門分授都城尺量步數, 別單書入, 自肅靖門東邊舞砂石至敦義門北邊四千八百五十步訓局分授, 自敦義門至光熙門南村家後五千四十二步半禁營分授, 自光熙門至肅靖門五千四十二步半御營分授.”

87)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53쪽.

88) 『風泉遺響』, 「登陴指掌」, “其於編排分守之制, 不敢苟且牽補. 取續兵將圖說御製序文中, 識者欲復五衛之教, 以騎步戰駐四統之法, 作爲一統, 冀效涓矣焉.”

용한 것으로 제1선에서 강안방어작전, 제2선에서 외성방어작전, 제3선에서 내선방어작전으로 이루어진다.

제1선 강안방어작전은 도성의 서쪽 임진강과 남쪽 한강을 끼고 있는 천연 장애물과 석포(石砲)를 이용하여 수중작전(水中作戰), 안상작전(岸上作戰), 강 주변에서 대포-방어시설-매복을 통한 합동작전 실시 및 정예포수(精銳砲手)와 궁노수(弓弩手)에 의한 적선(敵船) 제압작전, 그리고 아군의 청야전술로 적의 후속작전 불가로 인해 도강을 실시하는 적군에 대해 전개하는 강 대안에서의 매복 및 시환공격(矢丸攻撃)작전, 그리고 겨울철에 실시하는 빙성(氷城)을 이용한 동계작전(冬季作戰) 등 4가지 작전을 포함한다.⁸⁹⁾ 제1선의 방어작전은 기본적으로 『기효신서』의 절강방법에서 제시하는 산정법(算定法)에 따른 해안방어(海岸防禦) 전법을⁹⁰⁾ 전용하고, 숙종대 이온(李蘊)·최국량(崔國亮) 등이 편찬한 『단구첩록(壇究捷錄)』의 해·육 연속작전술을 결합시킨 전법이 었다.⁹¹⁾

제2선 외성방어작전은 주간(日間)의 수성전과 야간(夜間)의 검차전을 결합시킨 방어전법인데, 적군이 한강을 건너 오면 신기(神機)로 적 접근을 저지하다가 야간에 검차(劍車)를 앞세워 적을 직공한다는 것으로 내성전에 앞서 외성전을 전개하는 과감한 선제 공격법이다. 외선방어작전은 두 개의 접근로를 예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제1루트는 연서천(延曙川) 하류에서 용산(龍山)·마포(麻布)를 잇는 선이고 제2루트는 대현(大峴)·양화도(楊花渡)를 잇는 선이다. 제1루트에는 적루(敵樓)나 적대(敵臺)·옹성(甕城) 등 초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제2루트에는 정포(精

89) 『風泉遺響』, 「守都城」

90) 范中義, 「戚繼光抗倭的基本戰術」, 『兵家史苑』제1집, 1988, 127~135쪽.

91) 『壇究捷錄』은 명나라 王鳴鶴이 편찬한 『登壇必究』 40책 가운데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海陸邊防城池攻守江防水戰 등 육지와 해안의 접점에서 연계작전을 위한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登壇必究』 “一面清野練兵備之於陸, 一面鳩工造船御之於海.”)

砲) 수천 명을 동원하고 화기(火器)와 고각(鼓角)을 휴대하여 야간에 기습작전을 전개하는 방식을 구사한다.

3선 내성방어작전은 수성전법에 기초한 성곽방어법이다. 『무경(武經)』의 수성전법을 토대로 한 것이나 숙종대 『단구첩록』의 수성전을 보다 자세하게 제시한 것이다.⁹²⁾ 수성전법의 구체적인 전술행동요령은 도성밖에 적대를 쌓고 외남산으로부터 동소문에 이르는 송림을 유사시 벌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일종의 청야전술을 기본으로 삼고, 성벽에 성책(城柵)을 설치하여 수첩병(守堞兵)을 운용하며, 대성문(大城門)에 군사를 내외로 중점 배치하고 수많은 병계(兵械)를 설치하여 화공(火攻)에 대비작전을 전개한다. 전투 이전의 사전 조치 외에도 전투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조화순환포(造化循環砲)에 의한 연속사격, 성의 각 문에 건호(乾壕)를 구축하고 마름쇠(疾藜) 및 기교(機橋)의 설치·운용, 참호 안쪽에 중성(重城)에서의 작전, 병사들의 휴식 및 화약 보관을 위한 전석(專石)과 석회(石灰)를 이용한 사벽(四壁)의 축성 및 활용, 정예병 선발과 무기운용 및 비석(飛石)·시석총(矢石銃) 등을 이용한 부족한 무기의 보완, 정탐조 운용 및 각 군문의 유군(游軍) 편성 운용, 비졸(陴卒: 보병, 표하군, 잡색군) 외에 마을의 노인·여인으로 편성된 가수부(司釜婦) 활용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도성외곽지역방어는 연용대 외에도 강도·송도·남한산성·수원독산산성 등의 방어와 연결한 방어를 연화성(連花城)의 축성, 일와봉(一窩峰)·조화순환포·서과포(西瓜砲)·여지포(荔枝砲) 등 병화신기(別火神機) 6~7종을 제조, 배치를 통하여 방어의 전술적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제시하고 있다.⁹³⁾

결국, 이러한 도성사수를 위한 도성자체방어와 도성외곽지역방어라

92) 『風泉遺響』, 「登陴指掌」

93) 조화포일화봉 등은 충용청에서 구선행(具善行) 등이 주관이 되어 직접 제조한 신형 무기로 1773년 10월 말 국왕 영조에게 보고되었고, 11월경에 사격시험을 거쳤다. 이에 대해서는 『英祖實錄』 121권, 영조 49년 10월 27일(임자) 참조.

는 이중방어개념은 정조대에 가서 도성방위체계가 북으로 송도, 좌우로 강도와 광주에 의한 협수군, 그리고 수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과천·용인·진위·안산·시흥을 두어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환상협수체계’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⁹⁴⁾

당시 도성방위체계와 관련하여 전술적 행동에 많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⁹⁵⁾ 17세기 중엽 이후 화기제작 기술의 향상과 함께 전투병력 가운데 조총병이 주종이 되고 대구경 화포(火砲)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새롭고 다양한 화포가 제작되어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영조대에 와서도 화기의 개발이 활발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1731(영조 7) 훈련도감에서 동포(銅砲) 50문과 홍이포(紅夷砲) 2문을 제작하고 이를 싣는 수레를 52폭(輻) 제작하거나⁹⁶⁾ 1773년 6월 금위영에서 검차(劍車) 등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⁹⁷⁾

그리고 화기와 전법의 개발과정에서 청 기병의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적합한 진법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조선 초 오위진법의 재검토와 함께 척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숙종대에 이미 모든 군문에서 육화진법(六花陣法)이나 조선 초 오위진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⁹⁸⁾ 조선 초 기병 중심의 전법을 정리한 『진법(陣法)』을 각종 군관과 기패관 등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는가 하면⁹⁹⁾ 새로운 무기체계와 진법 개발을 위한 다양한 병서 연

94) 장필기, 「정조대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개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83~184쪽.

95) 본고의 2-나 항 참조.

96) 『英祖實錄』 30권, 영조 7년 9월 21일(신사).

97) 『承政院日記』 75책, 영조 49년 6월 24일(임자). “數十年講確, 枚擧筵稟後, 造置車輛於禁營者久矣.”

98) 『肅宗實錄』 18권, 숙종 13년 9월 21일(병신) ; 『肅宗實錄』 50권, 숙종 37년 2월 7일(병인)

99)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2월 26일.

구와 편찬도 진행되었다. 1742년(영조 18)에 조선 전기의 『진법』을 『병장도설』로 간행된 데 이어서 1749년(영조 25) 『속병장도설』과 1751년(영조 27) 『수성책자』 등이 연이어 간행되었다. 국왕인 영조 자신은 직접 『위장필람(爲將必覽)』을 직접 찬술하여 신하들에게 권장하였고,¹⁰⁰⁾ 『무비지』나 『병학지남』도 복간·강화되었다.¹⁰¹⁾ 정조대에 기병 활용을 포함한 조선적 병법체계로써 『병학통(兵學通)』을 완성했던 것은 이같은 병학적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¹⁰²⁾

다. 해방 강화와 수군 개편 논의

『만기요람』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왜(倭), 중국의 오(吳)·연(燕)·제(齊) 지방 등과 서로 마주하기 때문에 해방(海防)이 필수적이었다.¹⁰³⁾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해방(海防)의 주요지역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남해, 서해남부·북부, 그리고 압록강·두만강을 아우른 양강 및 일본과 상통하는 해로였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 조선의 해방체제는 남해의 해방을 위하여 새롭게 창설한 통제영(統制營)과 경기와 서해방어를 위하여 세워진 통어영(統禦營)이 중심 기구였다. 통영 관할의 해방체제는 17세기 전반에 일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영남의 수군 진보를 강화하다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수군 진보를 중심으로 증강되

100) 『英祖實錄』 82권, 영조 30년 8월 20일(정묘).

101) 『英祖實錄』 86권, 영조 31년 12월 17일(병진) ; 『英祖實錄』 96권, 영조 36년 7월 27일(기사).

102) 진법논의의 대표적 결과는 송규빈(宋奎斌, 1696~1778)의 상승진(常勝陣)과 양완(梁完, 1744~1816)의 원앙진(鴛鴦陣)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18세기 북벌론과 대청방어전략」, 『군사』 제41호, 2000 ; 노영구, 「18세기 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전술」, 『군사』 제64호, 2007을 참조.

103) 『萬機要覽』, 「軍政海防」 “我國東西南三面環海, 東及南距倭, 又南及西與中國之吳越燕齊地方相距, 故設置海防.”

었다.¹⁰⁴⁾ 서해방어를 위해 창설한 통어영은 후금 세력의 위협에 대비하는 성격이 컸다. 그 창설 과정은 1624년(인조 2) 경기수영을 남양부 화량진(花梁陣)에서 강화도로 이전했다가 정묘호란 직후인 1629년 경기수영을 다시 교동으로 이전하고, 이어서 화량·영종·초지·재물 등 4곳에 보(堡)를 만들어 한강 북쪽 항로와 강도(江都) 중심의 해방체제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1633년(인조 11) 경기수사를 삼도수군통어사로 승격시켜 충청, 경기, 황해 삼도의 수군을 통괄하게 하고,¹⁰⁵⁾ 나아가 통어영을 창설하여 경기·서해의 해방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도성 주변의 해방체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노적(奴賊)의 발호로 북변 정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어나면서 강도(江都) 방어에 관심이 증대되었고 여진족이 말을 잘 타고 배를 잘 몰고 다녔기 때문에 해상침략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¹⁰⁶⁾ 특히, 숙종대부터는 황당선(荒唐船)의 출현이 더욱 빈번해지고 해적(海賊)의 위협이 커져 서해 수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¹⁰⁷⁾ 이에 연해(沿海)에 대한 해로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형성된 해로 유통권(海路流通圈)을 보장하고 이를 방비하기 위해 외방포구를 중심으로 진(鎭)을 설치하여 왜적과 해적을 막아야 했는데, 당시 변장에게 해방을 신칙하고 수군강화 대책을 강조했던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경기도 주변의 수군 진보(鎭堡)를 강도를 중심으로 재편했다가 강화 내부의 진보를 육군 진보로 전환한 것은 당시 잦은 황당선의 출현과 활발한 강도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도성수비론’이 부상하면서 강화도가

104)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 2010, 10쪽.

105) 『大東地志』권4, 「江華都護府沿革」

106) 『備邊司謄錄』 2책, 광해군 10년 5월 30일 “都城·宗社之所在, 萬民之所托, 捨此何之, 第今日事勢, 不可不以變道處之, 江都之策, 所以生也.”; 『光海君日記』 15권, 광해 1년 4월 10일(신유) “胡人之向化者, 自海西歷畿甸兩湖, 濱海列邑, 無處無之, 而兩湖爲尤多, 以漁爲業, 伐木造船, 日以益滋, 盤據於四道者, 可至二百餘艇, 諳熟海路, 使艇如馬, 實我國之人所不能及也.”

107) 『肅宗實錄』 55권, 숙종 40년 3월 27일(무진).

종래의 보장처 개념에서 도성외곽방어의 중심지로 주목되었음을 말해 준다. 결국, 17세기말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계속된 강화도 방어체제의 변동은 결국 강화도 자체 방어는 육군 중심으로 하고, 1679년(숙종 4) 진무영(鎭撫營)을 설치하여 강화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방어단위로 구축하여 수군으로 강화도 외곽의 해방체제를 강화하여 외침에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정돈되었다.¹⁰⁸⁾

이러한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성외곽방어체제로서 해방대책은 진보의 설치 및 군현의 설치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이미 효종 4년 영종포를 자연도로 이설하여 영종진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¹⁰⁹⁾ 숙종대에 고금도에 첨사진을 설치하고 청산도에 별장진을 설치하거나 위도(蝟島)와 가리포(加里浦)에 수군진관(水軍鎭管)을 설치하는 등 기존에 내륙에 위치하던 진보를 서남해 해로상의 중심부로 전진 배치한 것이 그 실예다.¹¹⁰⁾

이렇게 전진 배치된 수군진은 해방 기능 외에도 송전(松田)과 봉산(封山)의 관장, 조운로(漕運路) 보장, 선박 건조, 수세(收稅) 기능, 민역(民役)·잡역(雜役)의 업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도서지역에 대한 군현 설치의 문제로 논의가 보다 확대되었는데, 1729년(영조 3) 나주지역의 여러 섬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읍 설치 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¹¹¹⁾ 당시 군현의 설치 논의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783년(정조 7)까지 찬반양론을 거듭하다가 도로에 그쳤지만, 종래의 남방 개념을 확장하고 그 방비에 대한 대책으로서 진보 이설을 비롯한 강도 중심의 해방체제 및 수군개편 등

108) 李敏雄, 「통제·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본부, 2012, 164쪽 ; 宋亮燮, 「17세기 강화도 방어체제의 확립과 진무영의 창설」, 『한국사학보』 13, 2002.

109) 『備邊司謄錄』 16책, 효종 4년 3월 3일.

110) 李敏雄, 「통제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179~181쪽 ; 김경옥, 「고금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13, 목포대, 1995, 191~192쪽.

111) 『英祖實錄』 23권, 영조 5년 8월 29일(신미)

전반에 걸친 해방체제의 검토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이제 18세기의 해방대책은 전통적인 남방(南防)으로서 대왜방어(對倭防禦)를 기본으로 부산과 그 인근 도시를 중시하여 해로로 몰운대-초량진 경유의 동래 해로, 또는 가덕을 경유하여 진주-순천-흥양(興陽, 고흥)으로 통하는 해로의 방비를 고려하면서도¹¹²⁾ 수도로 연결되는 서해 연안에 대한 적극 방어책으로써 재검토되었다. 18세 초, 숙종 말기부터 서해의 수군체제를 정비하고 조운로상의 요충지였던 안흥에 방어영을 설치한 것과 1718년(숙종 44)에 좌의정 이건명 등의 건의에 따라 웅진에 황해도 수군절도사영을 창설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해방 관점에 충실한 대비책이었다. 수군의 서해안 방어체제 강화 노력은 영조 재위 기간 중에 제기된 ‘도성수비론’과 맞물려 강화도의 해방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셈이다.¹¹³⁾

1734년(영조 10), 서해의 인후가 되는 창린도(昌麟島)를 본래대로 수영(水營)에 소속시켰는가 하면,¹¹⁴⁾ 1738년에는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의 건의에 따라 서해(西海)의 해방강화책으로 양남(兩南) 각진(各鎭)의 전선(戰船) 2척씩을 해서(海西)의 수영(水營)에 이속(移屬)시켰다.¹¹⁵⁾ 황해 수사 이의익(李義翼)의 보고에서 보듯이 서해에 출현한 황당선은 해안에 정박하여 해삼(海蔘)이나薪水(薪水) 채취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¹¹⁶⁾ 5~600명 선원에 의한 백령도 포위사건, 군기(軍器)의 약탈, 흑두포의 감관(監官)과 진장(鎭將)에 대한 구타, 이밖에 요망장(瞭望將)과 군교(軍校)의 납치 등 그 횡포가 점증하고 있었다.¹¹⁷⁾ 웅진(甕津)에 수사(水使)를 파견한 것만으로도 당시 서해안 방비에 대한 조정의 관심을

112)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七, 「邊圉典故」

113) 李敏雄, 「통계·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181~182쪽

114) 『英祖實錄』38권, 영조 10년 8월 9일(임자).

115) 『英祖實錄』47권, 영조 14년 6월 20일(신축).

116) 『備邊司謄錄』111책, 영조 18년 10월 6일.

117) 『英祖實錄』81권, 영조 30년 5월 30일(무신) ; 『英祖實錄』89권, 영조 33년 6월 14일(갑술) ;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七, 「邊圉典故·荒唐船」

집착할 수 있지만, 황당선의 점증으로 연해방어지로서 칭린도를 비롯한 초도·백령도·기린도·소강진 등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해 연안방비는 결국 강화도를 중심으로 도성수비와 연계하는 강도의 해안방어체계의 구축문제로 귀결되었다. 이 시기에 안정복(1712~1791)도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언급하며 왜구 퇴치를 위해 대마도 왜에 대한 제거와 해안 및 섬의 경계를 강조하고 청국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중심의 수비책을 제시한 바 있고,¹¹⁸⁾ 송규빈 또한 강도를 도서방어의 주변지역으로서 육군보다 수군 배치에 의한 해방(海防)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교동에 있던 통어영을 강화도에 이속시켜 강화도가 수륙의 방어를 모두 책임지도록 통어영과 진무영을 통합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1779년(정조 3)에 통어영을 강화부로 이속키는 결정이 내려졌다.¹¹⁹⁾ 그러나 1789년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를 교동부(喬桐府)에 다시 설치하면서 부사를 수군절도사로 삼고, 강화 유수가 겸관(兼管)하던 것을 혁파함으로써 복원 조치가 단행되었다.¹²⁰⁾ 강화도와 교동 모두 전선을 설치하여 해방체제를 갖추기에는 불편한 곳이므로 교동을 정비하여 통어영을 복설하여 도성의 인후이자 강화도와 순치관계에 있는 교동에 수군을 전략적으로 전진 배치하여 별도의 지휘체계를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²¹⁾

그런데 여기에서 강도의 해방논의와 관련하여 당시 전술적 방안도 제시되었던 점이 매우 흥미롭다. 송규빈은 강도수비문제와 관련하여 삼선방어망(三線防禦網) 구축과 교동통어사(喬桐防禦使)의 강도 통합을

118) 『順菴集』9, 「書與鄭子尙 別紙 癸卯」, “守江都之策, 專在海防. 西北通兩西, 西南通兩湖, 其間島嶼星羅棋布無非防禦之所也. 所可恨者, 法久弊, 生有名無實, 雖或修學, 多先其宜, 無緩急可恃者耳.”

119) 『正祖實錄』 7권, 정조 3년 3월 8일(임진).

120) 『正祖實錄』 27권, 정조 13년 5월 26일(임오) ; 『增補文獻備考』 권117, 「兵考」 9, 畿輔兵.

121) 李敏雄, 「통제·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183쪽.

제기했는데,¹²²⁾ 이는 강도의 갯벌로 인한 농토의 변화와 강도본부의 토축 등으로 인한 지형 변경, 강화도의 한강 입구로서의 군사적 기능, 강도와 교동의 군사적 분리로 인한 지휘체계상의 혼란 등을 고려한 실제적인 강화수비책을 제시한 것이다. 삼선방어망은 제1선에서 선단을 이용한 해상방어망을 구축하며, 제2선에서 토성과 목책을 이용한 방어망을 형성하고, 제3선에서 성책을 이용한 방어망을 구축하여 해상-연안-내지방어망의 단계적인 ‘선방어후공격’ 전술이었다.¹²³⁾ 결국, 송규빈이 제안한 선방어후공격 전술은 공세적인 방어단계 이후, 적의 공격 예상지점에서 돌이 아닌 석회-진흙-모래를 혼합한 토성(土城)을 쌓거나 목성(木城)을 쌓고 심호(深壕)를 만들어서 적이 일시에 돌격해 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종의 적극적인 해상방어론에 가까웠다.¹²⁴⁾ 이러한 방어전법은 당시 중국에서 주로 제기된 ‘해상방어에서 육상방어’로 끌어들이는 전법과 달리, 해상으로 진출하여 적극 방어한다는 공세적 방어전술의 전개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서해의 해방이 중시되는 가운데 18세기 수군체제에 관한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활발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수군 개선문제는 수군의 전선과 수군화기의 개조 및 연변의 수영(水營)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의 관리체계에 관한 개편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세기 초, 조선 수군은 전선 121척과 거북선 5척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조대 18세기 중반에는 거북선을 포함한 전선이 130척에다 방선(防船)과 병선(兵船)을 합쳐 440여 척의 군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선의 크기와 승선 인원도 조선 전기보다 2배 가량 확대되었고, 그 수자도 전기보다 1.5배 이상 증가된 7만여 명 이상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규모나 비중은 상당한 것이

122) 『風泉遺響』, 「江都」

123) 장학근, 『한국 해양활동사』, 해군사관학교, 1994, 329쪽.

124) 『風泉遺響』, 「江都」 “如不勝則退入土城內防禦, 又不勝則退入木城內嚴守, 此正是中流合賊洗足登岸也.”

었다.¹²⁵⁾ 그러나 당시 수군은 「수군변통절목(水軍變通節目)」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선제의 대형화로 인한 노군(櫓軍)의 충원을 사졸(士卒)로 변통하고 있었고,¹²⁶⁾ 후일 정약용(丁若鏞)이 ‘수군을 산간고을에 두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수군역(水軍役)의 폐해가 점증하고 있었다.¹²⁷⁾ 그리고 전선의 다원화로 인해 전선의 개량과 표준화, 수군 화기의 개조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선의 개량은 이미 1704년(숙종 30) 전선이나 구선 등의 탑승 인원이 164명과 148명이었던 것에서 1750년경에는 전선 1척에 200명을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었고, 좌우 총혈(銃穴)도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1735년, 형조판서 장봉익(張鵬翼)은 이삼(李森)과 더불어 전선과 거북선(龜船) 개조에 착수하여 전진 속도를 가속화한 거북선을 건조하는데 성공하였다.¹²⁸⁾ 또한 1740년 윤6월에 통영과 여러 도의 수영(水營)에서는 좌의정 김재로(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당시 전라 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제작한 해골선(海鵝船)을 만들었는데,¹²⁹⁾ 해골선은 몸체는 작지만 가볍고 빨라서 바람을 두려워할 걱정이 없어 당시 통영이나 각 도의 수영 병선이 노후하게 되면 1/2정도를 해골선으로 대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1751년 영남 군세사 박문수(朴文秀)는 전선(戰船)과 거북선(龜船)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전선은 개조 때마다 길어졌고 거북선 역시 종전보다 크기가 커져서 개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³⁰⁾ 전선의 개량과정에서 선박이 커지거나 들쭉날쭉해 각각의 선박에 대해 일정한 표준화를 제기한 것이다.

전선이 다양화되면서 왜 전선의 표준화와 동시에 소형화가 제기되었

125) 李敏雄, 「영·정조시대 수군체제의 재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본부, 2012, 169쪽.

126) 『肅宗實錄』 30권, 숙종 30년 12월 28일(갑오).

127) 『牧民心書』, 「兵典六條」練卒

128) 『英祖實錄』 40권, 영조 11년 1월 20일(신묘).

129) 『英祖實錄』 52권, 영조 16년 윤6월 18일(정사) ; 『備邊司謄錄』 106책, 영조 16년 윤6월 18일.

130) 『英祖實錄』 73권, 영조 27년 2월 21일(기축).

던 것일까? 『풍천유향』에서는 전선의 소형화와 함께 그 전술적 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컨대 바람이 불지 않아 적선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를 기다렸다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차례로 진격하고 대포를 쏘아 명중시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소형 선박을 이용한 해상전술의 기본 원리였다.¹³¹⁾ 송규빈이 전선의 표준화의 방향으로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소형화를 통한 전술적 운용을 주장한 것은 숙종대 이후 각 수영에서 거북선과 방선(防船)이 증가된 반면에 전선(戰船)의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도표는 17세기 후반 이후의 군선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

〈표〉 군선(軍船)의 변천 추이

구분	1678 (숙종 4)	1716 (숙종 42)	1746 (영조 42)	1808 (순조 8)
전선	124	121	117	99
거북선	(5)	5	14	30
방선	11	-	76	80

출처: 김재근, 『조선왕조 군선연구』, 일조각, 1980, 213쪽.

이러한 군선의 부족은 거북선으로 전선을 표준화하고 소형화된 전선을 활용하여 전술적인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전선 개량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정조 연간에 다목적용 전선을 활용하고, 송정(松政)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조운선(漕運船)과 전선(戰船)을 통용(通用)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¹³²⁾

한편, 수군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수군의 조련인 수조(水操)이 당시 수군 운용법의 개선 차원에서 중요시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조선

131) 『風泉遺響』, 「海防總論」 “以此觀之, 待賊船之無風難動, 以小舟迭進, 大砲碎之, 豈非制敵之良圖乎.”

132) 『弘齋全書』 권13, 「序引六戰船引」

후기의 수조는 1620년 광해군대 이후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1704년(숙종 30)과 1716년(숙종 42) 「수군변통절목」에서 각종 수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수조 관련 내용이 정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숙종과 경종대 약 50년간 11회의 수조 시행이 있었고, 영·정조대 76년간에는 총 19회 정도 시행되었다. 4년 반 만에 1회씩 시행된 셈이지만 흉년이나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이나 지휘관의 유고 같은 훈련불가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정지되었다.¹³³⁾

영조 연간에도 수조나 육조는 실시되지 않고 정지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742년 7월에는 전국에 대규모 전염병(癘疫)이 발생하여 수군의 조련을 중단한 것을 비롯하여¹³⁴⁾ 이듬해 역시 기근과 전염병으로 제도의 봄철 수조(水操)·육조(陸操)를 정지시켰다.¹³⁵⁾ 또한 1756년에도 흉년으로 정지되었으며,¹³⁶⁾ 1768년에는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의 건의로 각도(各道)·각영(各營)의 합조(合操)·운조(輪操)·순조(巡操)·순점(巡點)과 무사도시(武士都試) 등을 모두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제도(諸道)가 충재(蟲災)로 흉년을 입어 수조(水操)·육조(陸操)를 모두 정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¹³⁷⁾ 18세기 수군의 훈련과 각종 연해지역의 방어작전은 대부분 중단된 수조와 관련이 깊었다. 그러나 수군의 힘든 군역으로 대개는 무명을 내고서 바닷가 거주인으로 하여금 대신 금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수조는 잘 준수되지 않았다. 18세기 중엽, 통영(統營)의 합조(合操)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1766년 삼남지방의 수군은 각기 수영(水營) 앞 바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¹³⁸⁾

133) 李敏雄, 「17~8세기 수조 운영의 일례 고찰」, 『군사』 38, 1999, 66쪽; 同氏, 「영·정조시대 수군체제의 재정비」, 174~175쪽.

134) 『英祖實錄』 56권, 영조 18년 7월 16일(계유).

135) 『英祖實錄』 57권, 영조 19년 1월 22일(정축).

136) 『英祖實錄』 87권, 영조 32년 1월 13일(신사).

137) 『英祖實錄』 111권, 영조 44년 7월 9일(갑오).

138) 오봉근,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369쪽.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조선의 국방논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교훈 위에서 ‘남방(南防)’과 ‘북방(北防)’의 결합적 산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방보다 확대된 서해안 방어를 포함하는 남방,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해방(海防) 개념의 단초가 열리고 있었다. 그 귀결점이 도성수비체제 강화로 나타났던 것은 분명하지만 전국적인 범위에서 관방과 해방을 포괄하는 방어책에 관한 논의가 결코 간과되지 않았다. 본고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의 국방 논의는 임진왜란 당시 도입되었던 이른바 ‘절강병법’에 대한 비판과 이를 보완하는 진법논쟁이 단초가 되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병자호란 이후 청국의 간섭과 통제가 약화되면서 청국으로부터 새로운 무기제조의 기술이 들어오고, 여기에다 청국의 내부 사정과 대륙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조선의 군사증강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이 실현가능해졌다. 특히 서해에 황당선 등이 출현으로 인한 해방대책이 시급해졌고, 이에 대비하여 수도권 방어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군영제 시행과 더불어 조선 초 오위진법에 대한 활발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 영·정조대에는 다양한 병서와 병학 관련 서적이 간행되었다. 조선적 병법체계를 완성한 『병학통』, 조선무예 24기를 집성한 『무예도보통지』의 간행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송규빈의 상승진, 양완의 원양진 등과 같이 군사전문가에 의한 진법의 개발도 나타났다.

둘째, 18세기 조선의 방어전략은 구조적으로 수도와 수도외곽지역방어, 그리고 이를 더욱 확장시켜 북방과 해방을 아우르는 이중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하나는 종래의 왜구방어를 중점으로 하는 남방인 해방(海防)과 서해방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강화된 해방체계와 관서(關西)·관북(關北)을 연결하는 북방이 결합된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관방체계(關防體系)에 의한 방어망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자체방어와 수도외곽지역의 방어체계를 이루는 이른바 ‘환상협수체계’를 형성하는 방어망이다. 평안도의 별무사(別武士), 함경도의 친기위(親騎衛) 등의 운영은 관서·관북을 연결하는 관방체계 하에서 북방의 기병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부대편성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방어전략은 육해방에 의한 이중방어체계를 지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적인 유기성이 전략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아직은 미약한 단계에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¹³⁹⁾

셋째, 관방(關防) 가운데 산성의 운용이 퇴조하고 도성을 비롯하여 주요 산성이나 읍성 및 목성이나 목책 등을 활용한 방어시설이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축성법으로는 새로운 화기나 무기의 발달을 고려하여 경비나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견고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회나 벽돌을 사용한 축성법이 수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수목 등을 성 안팎에 심어 관방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권장되었다. 이는 1712년 북한산성 중성(重城)의 축조에서 거론된 바 있고, 1742년 강화외성의 축조 과정에서 강화유수 김시혁(金始赫)의 건의로 시행되었다.¹⁴⁰⁾

넷째, 18세기 해방대책은 전통적인 남방인 대왜방어(對倭防禦)와 대청방어(對靑防禦)의 양자적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서해안의 위협을 수도권 방어와 연계한 전술적 내용을 포함하였다. 해안이나 강안의 방어에서는 적극적인 해상방어나 강상방어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해안방어대책으로서 이른바 ‘3선방어망’ 개념이 제시되었다. 특히 서해안 방어를 위하여 종래 통어영(統禦營)이 강도로 이속되면서 교동

139) 군사사상적 측면에서 한국의 군사전략이 육해방을 상호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동시방어전략으로 본격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중엽이었다(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340쪽).

140) 『英祖實錄』 55권, 영조 18년 6월 19일(병오) ; 『英祖實錄』 56권, 영조 18년 10월 10일(정묘). 『英祖實錄』 61권, 영조 21년 4월 25일(정묘).

(喬桐)과의 관계에서 이설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강도에 진무영이 설치되어 육군 중심의 방어체계로 전환하자 그 반론으로 강도 수군의 개편문제가 제기되었다. 수군제도의 개선과 수조 관련 내용은 「수군변통절목」으로 정식화되었는데, 전선 개량이나 전선의 표준화 및 수군화기 개조 등에서는 ‘전술적 효용성의 증대’가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가뭄이나 흉년 등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잦아 수조나 육조 등 군사 훈련의 정지나 부실이 불가피했고, 힘든 군역을 기피하는 경향도 여전히 상존해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7. 6. 27, 심사수정일: 2017. 8. 13,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육방론, 해방론, 도성수비체제, 관방, 대왜방어, 대청방어, 남방, 북방

<Abstract>

The Developments of the Defence's Strategy for both the area of Land and Coast of Chose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Baek, Ki-In

The Defense strategy of Chose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was established by the substantial alternatives that based on historical lessons learned of Im-Jin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Byung-Ja Manchurian Invasion in 1636. This is composed of coastal defense strategy to cope with southern threats and to do northern one. The core is further extended coastal defense concept than former days and northern defense strategy to respond to Qing dynasty cavalry tactics.

This article conclusion is next.

First, the origin of defense strategy at the lately Chosen is criticism about Qijiguang's Military Tactics be based on 『Ki Hyo Shin Seo』, to seek countermeasure for its tactics.

After the lately 17th century, the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 at the Qing dynasty allowed Chosen dynasty independent military reinforcement, was appeared strange vessel at western coastal area of Chosen, so that countermeasure for capital area defense system was urgent demand.

Second, the defense strategy of Chose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extended capital and capital peripheral area, established to integrate dual defense system with whole nation fortress system.

Third, declined mountain fortress service, Capital fortress, town fortress, wooden walls became important.

In addition, traditional defense against Japan and Qing, these materialized capital area defense against the threat of the western coast be connected with tactical content. But, interaction between land and coast defense did not reach strategic level, yet remain fledgling phase.

Keyword: land defense strategy, coast (sea) defense strategy, Fortress defense system, fortress system, defense against Japan, defense against Qing dynasty.

